

## 미래발전을 위한 계획에 최선의 노력을...

남궁성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으로 취임한지 어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회부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집행이사님들을 비롯한 각위원회 위원장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

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 있었던 의학한림원의 운영에 관하여 회원 여러분들께 회부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회장 취임 후 집행이사(임원)들의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회장은 의학한림원 업무의 전체를, 부회장은 정책 및 의학한림원 10주년 기념행사 주관, 그리고 3명의 집행이사는 총무, 홍보, 학술, 그리고 재정분야를 나누어 관장하기로 업무분담을 하였습니다.

의학한림원은 7개의 분회와 7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성이 훌륭한 회원들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회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학술위원회는 9월26일 “치매”를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암연구재단의 암 연구지원 과제를 심사함과 아울러 연구진행 상황 평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암 연구과제의 심사 업무를 의학한림원에 의뢰하여 주신 안윤옥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위원회는 의학한림원 위원회 중 가장 바쁜 위

원회로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매달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10월 30일 국회 복지위원장실과 공동주최로 “보건의료분야에서 Big data의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위원회에서는 의학한림원이 나아가야 할 많은 정책적인 문제들이 토론되고 있으며, 향후 의학한림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학용어개발및표준화위원회는 금년 토론의 주제를 ‘각국의 의학용어 개발 및 발전과정’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의학용어 원탁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학용어 표준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지난 7월에 의협 회장, 의학회 회장 및 의학한림원 회장과의 합동 회의를 거쳐 의학한림원의 의학용어개발 및표준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의학용어 표준화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표준화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승열 교수님이 맡아 의협과 의학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 ‘의학용어집 제6판을 발간 할 예정입니다. ‘의학용어집 제6판’은 각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혼란이 없고 중심이 잡힌 의학용어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인사위원회는 임기정회원과 종신평회원 선출을 위한 업무와 함께 임기정회원 연임에 관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기정회원의 인원조정 문제와 함께 임기정회원 선출에 있어서 임상과에 따른 난이도를 조정하는 문제들이 의논될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인 화이자의학상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제11회 화이자의학상 시상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화이자의학상 심사위원들에 의해 기초

및 임상부분 응모논문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9월 중순에는 수상자가 발표 될 예정입니다. 또 화이자의 학상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분야에서 non-MD도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처에서는 사무체계의 전산화를 위하여 “의학한림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및 기타 프로그램 추가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시에 의학한림원 회원명부 및 회원들의 업적도 전산화하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9월중에 완성 할 예정입니다. 또 회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위하여 회원들만 가질 수 있는 회원 수첩을 만들어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재무 결재체제에서는 현재까지 재정위원장이 결재과정에서 빠져있었음을 정정하여 정식 결재 선상에 배치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의 의학한림원의 업무량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직원 한명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량이고, 또 업무량은 점차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훌륭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신 관현아 사무직원과 의학한림원 업무를 맡없이 처리해 주신 의학회 최영학 국장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학한림원이 사무처의 업무를 위해 사무실과 직원을

갖게 된 것은 불과 3년 전인 2010년 6월 조승열 회장 시기였습니다. 2004년 창설시기로부터 사무실도, 직원도 없이 홀로 의학한림원을 지키고 발전시키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10여년의 어려웠던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의학한림원은 더 크고, 공정하며,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조직체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원의 회비와 의료단체들에게서 받는 보조금으로만 운영되는 의학한림원의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는 재정입니다.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극히 제한된 의학한림원 업무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정위원회에서는 집행이사회 결의를 거쳐 의학한림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 제도를 마련하여 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간곡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원 10주년이 되는 2014년을 맞이하여 의학한림원 임원진들은 의학한림원의 미래발전을 위한 계획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학한림원 의학용어개발 및 표준화위원회 활동

조승열 (성균관 의대 명예교수, 의학용어개발및표준화위원장)



2004년 4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이하 의학한림원으로 약함)이 발족할 당시 정관에는 의학용어개발 및 표준화위원회 (이하 용어위원회로 약함)를 설치하는 규정이 없었다. 의학한림원 집행이사회는 창설 이후

우리나라 의학용어 문제를 학문적으로 토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용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용어위원회는 위원장 지재근 회장, 부위원장에 함창곡 교수와 조승열, 손승국, 송영빈, 강현화 교수 등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005년 5월 30일 첫 위원회를 열었다. 첫번째 위원회에서는 용어위원회 활동으로 원탁토론회 (round table)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2005



년 6월 22일 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첫 번째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원탁토론회는 “병(病), 질병(疾病), 질환(疾患)”이라는 주제로 지제근 위원장의 주제발표, 송영빈, 손승국, 조남호 위원의 지정토론과 이후 자유토론으로 구성하였고 이런 원탁토론회 방식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원탁토론회 이후 “사람의 발달 단계 관련용어”, “약 관련 용어”, “의학에서 사용하는 영양 관련용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관한 용어”, “의료인의 명칭에 관한 용어”, “전문용어의 띄어쓰기”, “새로운 의학용어의 정착 과정과 향후 방향”이 주제였다. 의학한림원 제1기 집행부(지제근, 김병길 회장) 임기가 끝나면서 2년간 발표하였던 8회에 걸친 발표 자료를 “의학용어 원탁토론회 발표자료집 2006”이라는 단행본으로 발간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2기 집행부(유승흠 회장) 시기에 용어위원회는 함창국 위원장과 강종명, 강현화, 서연립, 손승국, 송영빈, 임태환, 조승열, 지제근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원탁토론회는 모두 7회 개최하였다. 주제는 “학술지 편집 용어”, “의학 용어학”, “우리나라 의학 용어의 제정 방향”, “의학 관련 용어의 외래어 표기법”, “-성(性)의 요법과 그 생각 범위”, “-선(腺)과 -샘” 등이었다. 그 내용은 “의학용어 원탁토론회 발표자료집 제2집 2009”로 발간하였다. 의학한림원 용어위원회는 의사협회의 용어위원회와는 달리 용어를 합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단지 의학

용어를 학문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고 합리적인 합의점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모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협의 의학용어집 제6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인식하였다. 그리고 의학 용어가 좁은 의미의 의학뿐 만 아니라 치의학, 수의학, 간호학, 약학 등 유관 학문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지정토론자로 유관 학회 관련자를 참여시키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3기 집행부(조승열 회장) 시기에 용어위원회는 강종명 위원장과 강현화, 김여갑, 김주한, 손승국, 은희철, 지제근, 함창국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원탁토론회는 모두 15회 개최하였다. 제16회 원탁토론회 주제는 “의학용어 권장용어의 선정방향”, 제17회는 “기초 의학용어와 임상의학용어의 조화”, 제19회는 “새로운 용어의 수집절차와 관리 방법”이었고, 제18회와 제20-제30회 원탁토론회는 “전문학회의 의학전문 용어에 대한 토론”으로 제18회 정신신경계의학 용어, 제20회 순환기학, 소화기학, 외과학, 제21회 호흡기학, 내분비학, 정형외과학, 신경외과학, 제22회 신장학, 미생물학, 제23회 비뇨기과학, 이비인후과학, 제24회 예방의학, 산부인과학, 병리학, 제25회 신경과학, 재활의학, 제26회 마취과학, 응급의학, 진단검사의학, 제27회 간호학, 피부과학, 제28회 치과보철학, 치과교정학, 제29회 가정의학, 소아청소년의학, 생리학, 제30회 성형외과학, 방사선종양학 등이었다. 일련의 원탁토론회를 통하여 의협 의학용어집과 각 학회 용어집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각 용어를 아우르는 체계를 계속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주제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 내용을 “의학용어 원탁토론회 2013 발표자료집 제3집”으로 발간하였다.

2012년에 개최한 의학한림원 집행이사회는 의학한림원 활동에서 차지하는 용어위원회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승격시키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총회를 통과시킨 후보 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었다. 현재 제4기 집행부(남궁성은 회장)의 용어위원회는 위원장 조승열, 위원 강종명, 김강현, 김석일, 김주한, 손승국, 송지영, 지제근으로 구성되었다. 제31회 원탁토론회 주제는 “우리나라 의학용어 제정과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집의 정비과정 그리고 바람직한 정비 원칙”이었다.

## 제31회 의학용어 원탁토론회 개최 보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의학용어개발및표준화위원회는 2013년 6월 24일 수요일 오후3시에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제31회 의학용어 원탁토론회를 ‘우리나라 의학용어 준비의 일반 원칙’을 주제로 개최하였다. 본 원탁토론회는 지제근 교수(서울의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용어개발및표준화위원회)가 ‘우리나라 의학용어의 제정과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집의

정비과정, 그리고 바람직한 정비원칙’에 대하여 주제발표하고 김선철 연구관(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과 송지영 교수(경희의대 정신과학,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용어개발및표준화위원) 그리고 김주한 교수(한양대의 신경과학,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용어개발및표준화위원)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 회원 동정



권건영 (임기정회원)

권건영 회원(계명의대 병리학)은 7월 5일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2013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간접흡연의 장단기 노출에 의한 세기관지 및 폐포상피세포의 손상 평가(Evaluation of bronchiolar and alveolar cell injuries induced by short and long term exposure to sidestream smoke)”의 연구논문으로 제23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김달수 (임기정회원)

서울 COEX에서 2013년 9월 8일-13일에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WFNS2013)에서 9월 9일 “모야모야병에서 직간접의 병합수술 후에 혈관조영상에 나타나는 혈관재생의 범위”에 대한 구연발표로 직접적인 EC-IC bypass 못지않게 간접적인 bypass surgery의 역할이 적지 않음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서 9월 10일 “모야모야병에서 표준치료법이란?”에 대한 session에서는 좌장역할을 맡는다.



김현철 (임기정회원)

제4분회 내과학의 김현철 회원은 7월19일 대구에서 보석 같은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의 Gem Singers라는 젊은 성악가 15명으로 구성된 보컬 앙상블의 초대 단장으로 취임하였고, 앞으로 젊은 음악가들의 활동을 돕는 후원 사업을 하면서 후년의 삶을 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노영무 (종신정회원, 회원인사위원)

그 동안 세종병원에서 세종의학연구소장(2006-2009)과 세종병원장(2009-2013)을 역임하고 지난 6월 말로 병원장직을 끝내면서 7월 1일 우촌심뇌혈관연구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우촌심뇌혈관연구재단은 우촌(박영관 회장)과 안병광회장 등의 출연으로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연구활동지원, 학술지원,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난 6월에 설립된 바 있다. 재단은 오는 11월에 심혈관중재시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및 소아심장학회에 연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노영무 종신정회원은 재단 사업에 전념하면서 전공의 지도교육과 환자 진료도 계속 한다.



### 민병일 (임기정회원)

민병일 회장은 대한생리학회 회장으로서 지난 5월에 2021년 국제생리학 학술대회(IUPS 2021) 한국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2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7월 21일 IUPS 2013이 열린 영국 버밍햄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IUPS 2021 유치자격 Top 3에 선정된 대한생리학회는 오스트리아, 중국에 이어 세번째로 유치지지를 위한 발표를 하였고, 총회에 참가한 55개국 대표들의 투표 결과 오스트리아 4표, 중국 34표, 그리고 한국 17표의 지지로 나타났고, 2021년 IUPS Congress는 이번에 3번째 유치신청을 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게 되었다.

대한생리학회는 첫 번째 유치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선전하였다는 IUPS 회장, Denis Noble 교수와 FAOPS 회장인 Julie Chan 교수로부터 e-mail을 받았고, IUPS 유치를 위하여 4년 또는 8년 후를 기약했다.

이번 유치위원단의 구성원 및 역할은 민병일 교수 (총괄 및 총회에서 발표), 조양혁 교수 (총괄 및 총회에서 투표), 박병림 교수 (FAOPS 관련), 김상정 교수, 이덕주 교수(IUPS 이사회 참석, 질의응답), 임채현 교수, 전양숙 교수(IUPS 관련), 김우진 대학원생 (안내 및 통역)이었고, 이번 행사를 적극 지원해준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시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 배종우 (임기정회원)

#### 18회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저술상 수상

2013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시사회 주최 '제18회 서울특별시시사회 의학상' 저술상 (저서: 한국 신생아 역학)을 수상하였다. 배종우 회원 (경희의대 소아청소년과)은 지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생아·영아·주산기 분야 역학 전문서인 《한국 신생아 역학: 통계와 임상 자료》를 출간, 화제를 모았다. 이 책은 한국의 신생아·영아·주산기 분야의 역학적 변천과 미숙아·신생아 질환의 임상자료를 소개했다.

#### '이른둥이' 캠페인, 아시아PR어워드 우수상 수상

대한신생아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배종우 회원은 이른둥이(미숙아)의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작년에 '이른둥이 희망 찾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7월 홍콩에서 개최된 '2013년 아시아PR어워드'에서 비영리 캠페인(Nonprofit Campaign of the year)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 故 신정순 (종신정회원)

한국 재활의학의 선구자 신정순 종신정회원이 8월 9일 노환으로 별세하셨다. 고인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과 한국재활의학회장, 국제키비스탄 한국본부총재,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장, 한국뇌성마비복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재활의학 발전과 장애인 복지향상에 헌신해 왔다.

장애인 인권신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과 모란장을 수훈했으며, 한국장애인인권상·서재필의학상·국제키비스탄 공로상 등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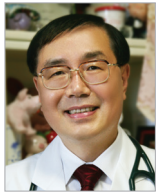


### 장성구 (임기정회원)

1.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연구사업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장성구 회원은, 미국 San Francisco에서 개최된 제10차 Guideline International Network 학술 대회에 참석하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임상진료지침의 제정과 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귀국하였다.

2. 보건의료연구원에 신설된 "보건의료 안전 자문 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었다.

3. 의료법 개정에 따라 자동 해산된 대한의사회 의료공제회에 대한 특별 정밀 감사 위원장을 위촉 받아 의료공제회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설립 가능한 공제조합의 role model을 개발하고 공제회 청산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였다.



**정명호 (임기정회원)**

2013년 6월 7-8일 제11차 광주국제심장술 심포지움 (Gwangju Interventional Cardiology Symposium) 을 개최하였고, 세계 최초로 관상동맥 스텐트 혈전과 재협착을 예방할 수 있는 다중약물방출 스텐트의 특허를 등록하였다.

## 제4회 학술포럼 개최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정체성 및 역할과 관련하여 미국의학한림원 (IOM)을 모델로 하여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학술위원회는 학술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당면 보건의로 문제를 학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제4회 학술포럼은 ‘치매 없는 노년’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3. 9. 26(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의대 압연연구소 2층 이견희홀(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주제 : 치매 없는 노년

주제발표 : 나덕렬 (성균관대의대 신경과 교수)

- 치매,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가?

좌 장 : 한설희 (건국대의대 신경과 교수)

지정토론 : 이윤환 (아주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치매의 공중보건학적 영향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

- 국가 치매 관리 현황

박상기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 치매의 사회 문화적 이슈

김기웅 (국립중앙치매센터장,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치매 치료와 예방효과에 대한 역학적 근거

북인희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 발병 이전에 근거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김성운 (울산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치매 연구의 현황과 성과 - CRCD 및 K-ADNI

**제 4회 학술포럼**  
**치매 없는 노년**  
일시 : 2013. 9. 26(목) 14:00~17:00  
장소 : 서울의대 압연연구소 2층 이견희 홀

- 사회**  
회방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학술위원장)
- 개회인사**  
남궁성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 주제발표**  
나덕렬 (성균관대의대 신경과 교수)  
- 치매,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가?
- 좌장**  
한설희 (건국대의대 신경과 교수)
- 지정토론**  
이윤환 (아주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치매의 공중보건학적 영향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  
- 국가 치매 관리 현황  
박상기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 치매의 사회 문화적 이슈  
김기웅 (국립중앙치매센터장,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치매 치료와 예방효과에 대한 역학적 근거  
북인희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 발병 이전에 근거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김성운 (울산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치매 연구의 현황과 성과 - CRCD 및 K-ADNI

주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후원 보건복지부 대한의학박

## 보건의료정책포럼 개최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회에서는 정책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보건의료 정책포럼을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3. 10. 30(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헌정회관(예정)

주제 :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좌장 : 임태환 (울산의대 영상의학,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

발제 : 박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

-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박형욱 (단국대의대 인문사회의학)

-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법과 정책

이영성 (충북의대 의료정보학및관리학)

- 전자정부 3.0과 의료 빅데이터

패널토론 : 신의철 (가톨릭의대 예방의학)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주한 (서울의대 의료정보학, 의료정보학회 이사장)

이영조 (서울대 통계학, 과학한림원 빅데이터위원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권대석 (클루닉스 대표이사, 빅데이터 혁명 저자)

**보건의료정책포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일시 | 2013년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3시  
장소 | 국회 헌정회관(예정)

■ 등록 (14:30~15:00)  
■ 개회 (15:00~15:15)  
• 개회사 및 축사

■ 발제 및 토론  
좌장 : 임태환 (울산의대 영상의학,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

- 발제 (15:15~16:00)  
• 보건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 박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  
•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법과 정책 : 박형욱 (단국대의대 인문사회의학)  
• 전자정부 3.0과 의료 빅데이터 : 이영성 (충북의대 의료정보학및관리학)

- 패널 토론 (16:00~17:30)  
• 신의철 (가톨릭의대 예방의학)  
•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 김주한 (서울의대 의료정보학, 의료정보학회 이사장)  
• 이영조 (서울대 통계학, 과학한림원 빅데이터위원장)  
•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권대석 (클루닉스 대표이사, 빅데이터 혁명 저자)

- 자유토론 (17:30~18:00)

■ 폐회 (18:00)

주 회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오재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 제32회 의학용어 원탁토론회 개최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일반 국민들이 널리 쓰거나, 전문용어라도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달라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의학 관련 전문용어를 선별하여, 이들에 관한 전문가들의 심층토론을 거쳐 의학계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산될 수 있는 용어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학용어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2회 의학용어 원탁토론회는 '일본의학용어'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3. 10. 23(수) 오후 3시

장소 :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서울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주제 : 일본의 서양의학용어의 도입과 일본의학용어의 발전과정

주제발표 : 김강현 과장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지정토론자 : 지제근 교수 (서울의대 병리학)

송지영 교수 (경희의대 정신과학)

## 제11회 화이자의학상 시상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대한민국 의학발전 및 인류건강복지에 기여한 의학자를 발굴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자 '제11회 화이자의학상(Pfizer Medical Research Award)'을 시상한다. 화이자의학상은 연구자의 우수 논문 에 대한 시상으로 수상자는 총 2명(기초의학상 1명, 임상의학상 1명)을 선정하여 상패와 각 3,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 11회 화이자의학상 시상식은 2013년 11월 6일(수) 저녁 6시에 조선히텔에서 시행한다.

## 바로 잡습니다.

제9호 뉴스레터 3페이지 회원현황에서 생리학 분야에 임기정회원 수가 7명으로 되어있던 것을 6명으로, 6분회 산업의학의 명칭을 직업환경의학으로, 임기정회원 수가 1명으로 표시되어있는 것을 2명으로 바로 잡습니다.

분회	분과	종신정회원 수		임기정회원 수		정회원 수	
제1분회	생리학	1	2	6	20	7	22
	생화학분자생물학	-		8		8	
	약리학	1		6		7	
제6분회	마취통증의학	2	8	16	56	18	64
	방사선종양학	-		5		5	
	직업환경의학	-		2		2	
	영상의학	3		18		21	
	응급의학	2		4		6	
	진단검사의학	-		9		9	
	핵의학	1		2		3	

### 투고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 매체로서 의학 진흥과 학문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여러분의 대변지입니다. 보다 활성화 되고 폭넓은 여론의 광장으로서 명실상부한 뉴스레터 편집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발 행 일 : 연 4회(3월/6월/9월/12월) 발간
- 접 수 처 : 140-7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편집실  
전화 : 02-795-4030 팩스 : 0502-795-4030 e-mail : namok@kams.or.kr
- 투고내용 : 제언, 회원 근황, 행사안내, 기타 홍보사항
- 원고접수 : 수시접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제10호

발행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140-7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Tel. (02)795-4030 Fax (0502)795-4030  
 발행인 | 남궁성은 | 편집인 | 김진 | 인쇄 | 아람에디트 Tel. (02)273-2497